

# 부활의 확실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내가 여기 서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에게  
증언합니다.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실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22,23**

부활에 대한 확신은 성경에서 매우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이며,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죽음의 본질을 완전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망각의 상태, 즉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9:5,6,10). 완전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창세기 2:17; 로마서 5:12; 6:23). 하나님은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셨다: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흙에서 나왔음이라 네가 흙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19). 사후 세계나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아담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없이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부활 계획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었죠.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 정하신 이를 따라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7:31).

## 예수님의 부활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예수님이 아담을 위한 랜섬으로 죽으신 것은 지극히 중요했으나,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셔야 하는 것 또한 동등히 필요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사야 9:6,7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약속들을 성취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 )의 권세가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Wonderful), 모사(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Mighty God), 영존의 아버지(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Prince of Peace)이라 하리라 그의 통치와 평화가 끝이 없을 것이라.” 제자들은 이 약속이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 시기에 성취될 것으로 기대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토록 낙담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일이 되던 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주님은 낙담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다. (누가복음 24:1,21) 그들은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계획 중 이 중요한 부분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부드럽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리석고 마음이 둔하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누가복음 24:25-27). 이후 사십 일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으나,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 )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화해 계획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14-36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교리는 성경의 여러 분명한 진술을 통해 가르쳐집니다. 욥기 14:13-15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며, 정해진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노라! ...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이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원하시리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죽은 자들이 살며, 나의 시체와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너희 이슬은 풀의 이슬 같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사야 26:19).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랜섬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리라. 죽음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무덤아, 내가 네 멸망이 되리라." 호세아 13:14

##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부활의 절대적 확실성은 신성한 약속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부활이 요구되었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15-18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창세기 17:19).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수년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다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창세기 22:1,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확신은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 남겨진 이들에게 한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나와 이 소년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지시했습니다(5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17-19에서 이 생각을 확증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약속을 받은 자가 독생자를 드렸으니 곧 그에게 이르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불리리라' 하신 바 된 자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리라 여기고 또 상징적으로 그를 다시 받았느니라" ( ). 이 그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예수님은 이삭으로 나타났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들을 성취하시려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써, 반드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여인이 일곱 명의 죽은 남편들의 아내였다는 터무니없는 상황을 꾸며내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주님께 던진 질문은, 천국에서는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에 잘못 알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마태복음 22:23-30).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에는 결혼이 없을 것이므로 사두개인들이 꾸며낸 상황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교리 속 오류를 지적할 기회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31,32절; 출애굽기 3:6

사두개인들은 조상들이 수세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참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관계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18,19에서 모세는 새 중보자와 새 언약 아래 운영될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였다. “내가 그들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가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벌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21-26에서 모세의 이 예언을 왕국에 적용하며, 이를 “만물이 회복되는 때”라 칭하고, 이 놀라운 때가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청중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원래의 예언( )을 상기시켰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설교는 성전 현관 중 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청중 가운데에는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선언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축복하시려고 보내셨으니, 이는 너희 각 사람을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 하심이라" 하자,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고, 그를 통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다. 기록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수를 통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사도행전 4:1,2

## 율법 언약의 예언적 특징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 언약의 많은  
특징들이 미래 사건들을 예표했다고  
알려줍니다(고린도전서 10:11; 히브리서 10:1). 특히  
율법의 일부인 레위기 23장에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이 장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민족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첫  
달 열네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아야 했고, 열다섯 날에는  
무교절을 지켜야 했는데, 이 절기는 칠 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6; 레위기 23:5,6).  
이스라엘 백성은 "첫 달 열다섯 날, 곧 유월절 다음  
날"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민수기 33:3).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곡식 수확을 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추가 의식을 행하라고 지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읽는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작물을 거두면, 너희는 그 소작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여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게 할지니 안식일 다음 날에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레위기 23:10,11). 여기서 언급된 "안식일"은 무교절 첫날을 표시하는 거룩한 집회를 의미한다.

의식의 일환으로 제사장은 들판으로 나가 익은 곡식을 골라 한 다발을 묶어 단을 만들었다. 그는 돌아와 제단에서 그 단을 주님 앞에 흔들여 추수의 첫 열매로 드렸다. 이 행위는 오십 일 동안 지속될 곡식 추수의 시작을 알렸다. 15,16절

이 절기의 특징은 예수님의 경우에 놀라운 예언적 의미를 지녔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세부 사항을 완벽히 지키셔야 했다. 니산월 14일은 해질녘에 시작되었으며, 한밤중이 지난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가야바에게 넘겨진 뒤

로마인들에게 인도되었다(마태복음 26:47-75; 27:1-26).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3시(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는 여전히 니산월 14일이었다. 예수님은 제9시(오후 3시경)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숨을 거두셨다. (마가복음 15:25-37).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니산월 14일, 즉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들이 잡히는 바로 그날에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이 연관성을 확인하며 "우리 유월절 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7

예수님의 시신은 니산월 14일 해질 무렵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53-55). 시신은 다음 날 해질 무렵부터 해질 무렵까지, 즉 안식일인 니산월 15일 내내 무덤에 머물렀습니다. (56절). 그 후 이른 아침—즉 주간의 첫째 날, 니산월 16일—에 여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발견하고 (누가복음 24:1-6; 마가복음

16:1-6). 이로써 예수님은 영적 추수의 "첫 열매"이자 죽음 가운데 잠든 자들의 "첫 열매"—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20). 우리는 유대인 제사장이 니산월 열여섯째 날 이른 아침 주님 앞에서 곡식 단을 흔들며 예식을 행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바울의 상세한 증언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여 약속된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복음[그리스어: 좋은 소식]임을 상기시키며, 그 메시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3,4

사도는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분을 보았고, 그 후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이 그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습니다(5-8절). 12-19절에서 바울은 부활 교리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조차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타나신 것은, 그분의 랜섬 제물의 가치나 공로를 신성한 정의의 손에 드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논증의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지으며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는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음 같이 사람[예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음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즉, 모든 사람이 순종을 통해 영생을 얻을 기회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20-22절). 바울은 부활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설명한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라." (23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며, 사도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들이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 (마태복음 19:28,29; 요한계시록 20:6). 그다음 왕국의

백성들,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28,29

## 육신과 영적인 몸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 네가 심는 것은 장차 될 그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심는 것이니, 그것은 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곡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몸에 형체를 주시며, 각 씨앗마다 그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요,  
사람의 육체가 하나요, 짐승의 육체가 또 다른 것이요,  
물고기의 육체가 또 다른 것이요, 새의 육체가 또 다른  
것이니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이  
있으니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하나요,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또 다른 것이니라. 해의 영광이 하나요,  
달의 영광이 또 다른 것이요, 별의 영광이 또 다른  
것이니, 별과 별이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부패할 것으로 심겨지나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수치를 당할 것으로 심겨지나 영광을 받을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겨지나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지나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35-44

사도 바울의 이 진술에는 여러 비유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부활 시에는 한 종류 이상의 몸이 존재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진 자들과 영의 몸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이 가질 몸의 종류는 죽음에 뿌려진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가 38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개인이 이 생애에서 발전시키는 인격이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인류 대다수는 이 땅에서의 삶에 가장 적합한 성품을 지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를 가진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 지구는 살기에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현재에 이르러,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진 더 높은 삶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은 마음과 정을 땅의 것에서 돌이켜 영적인 것에 두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로마서 12:1,2; 골로새서 3:1-3).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여 영적인 마음을 발전시키는 지경에 이르면, 이는 그들이 죽음 속에서 뿌리는 성품이 되며, 이들은 부활 때에 영적인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영적 본성으로 부활하는 자들에게 불멸이 주어진다고 설명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죽음이 승리로 삼켜졌도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5:53,54). 본문의 요지는 현 시대의 일이 완성되고 신성한 본성을 갖게 될 모든 이들이 부활할 때, 바울이 부분적으로 인용한 이사야 25:6-10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부활로 땅의 티끌에서 돌아온 인류에게 임할 왕국과 축복에 관한 예언이다.

“그[하나님]께서 승리로 죽음을 삼키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온 땅에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책망을 없애시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 날에 이르기를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8,9). 그러므로 예언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신실한 사도들이

말씀하신 부활의 확실함을 기뻐합니다. 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